

# 역공간(Liminal Space) 개념으로 해석한 현대도시 공공공간의 혼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조경진\* · 한소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 A Study on Hybrid Characteristics of Public Space in Contemporary Cities Reinterpreted by the Idea of Liminal Space

Zoh, Kyung-Jin\* · Han, So-You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Environmental Planning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is a reinterpretation of characteristics of public space in contemporary cities with a view to liminal space. The conditions of public space now cannot be captured through the existing discourses of publicness, and public space. The basic premise of the study is that the idea of liminal space or liminality is useful to grasp the fluid and hybrid attribute of public space in contemporary cities. Liminal space, originally from anthropological studies, is the intermingled stage between two realms and the sustained period of the ritual. The idea has been widely used for various cultural phenomenon and spatial experiences. A literature review on public space and liminal space was carried out. Cases pertaining to public space with a view to liminal space were examined and discussed in detail.

Through the careful reading of several public spaces with an angle toward liminal space, the new perspective toward public space will be drawn out. First, we need to emphasize the fluid spectrum of public space rather than the serial stage such as the public, the semi-public, the semi-private, and the private. Second, the idea will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flexible state depending upon time. What we can learn from case studies is the volatile characteristics in public space as a common phenomenon support its vitality. This interpretation will contribute to the perception of a new horizon of public space. The nature of public space is unpredictable and free. In reality, the spectrum of public space will expand and fluctuate. Ironically, public space can be vitalized through enhancing and activating the private space. The intimate and complicated interface between the two realms is a key issue. The boundary of public space might be redefined to embrace the flexible the fragile nature of changing public space. These research implications will guide the thoughtful design and management of public space.

*Key Words: Public Realm, Publicity, Liminality*

---

**Corresponding author:** Kyung-Jin Zoh,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Korea, Tel.: +82-2-880-1358, E-mail: kjzoh@snu.ac.kr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현대 도시 공공공간의 특성에 관하여 역공간 관점의 해석을 시도한다. 새로운 유형의 공공공간의 양상은 기존 공공영역과 공공성에 관한 문화정치적 담론,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혼재에 따른 도시문화적 담론 등의 해석으로만 조망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복잡적이다. 현대 공공공간의 다층적이고 유연한 성격을 포착하는 데는 역공간의 개념이 유용하리라는 것은 본 연구의 가설이다. 역공간이란 그 속성상 이곳과 저곳에 속하지 않은 상태를 기본조건으로 삼고 있고, 제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시간적인 전개를 기저에 깔고 있다. 이러한 속성은 기존 공공공간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첫째, 공공공간과 사적공간, 반공공공간과 반사적공간 등으로 구분되는 층위적 개념에서 보다 연속적 속성을 부각하는데 유용하며, 둘째,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장소에 기반을 둔 고정적인 상태가 아닌 시간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속성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론적 기획을 바탕으로 도시 공공공간의 몇 가지 사례와 그 특성을 살펴본다. 사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대도시 공공공간의 혼성적 특성이 도시 공간에 활력을 주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역공간 관점의 해석은 공공공간의 지평 확장과 재인식에 기여한다. 첫째, 공공공간의 지형도는 끊임없이 진화한다. 관리 주체나 소유의 관점에서 공공공간은 명확한 경계를 지니지만 혼재성의 관점에서 실제로 인식되고 활용되는 공공공간의 범위는 확장된다. 둘째, 같은 맥락에서 공적공간의 활성화는 사적인 공간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접속할 때 활성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긴밀하게 결합하는 세심한 전략과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역공간으로 본 공공공간은 그 영역과 범위가 다양하게 변동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 연구의 실천적인 함의는 역공간적 속성을 고려한 공공공간의 도시 설계와 이를 수용하는 유연한 도시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주요어: 공공영역, 공공성, 역치성

## 1. 서론

최근 세계 많은 도시들의 공공공간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20세기말부터 일부 도시학자들은 인터넷이나 사이버공간의 등장으로 물리적 형태의 도시 공공공간의 쇠퇴나 소멸 가능성에 접치곤 했다. 사이버공간의 커뮤니티나 소통이 활발해지는 현상이 가속화되기는 하지만 동시에 실제 공공공간에 대한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도시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공공공간은 도시디자이너나 전문가에게 다시 중요한 관심거리로 부각되었다. 이제 도시재생과 도시이미지개선 등과 관련된 공공공간의 부흥은 전 세계적 도시현상이 되고 있다(Akkr, 2005). 최근에 유럽도시에서는 도시중심부에 위치한 공공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규모의 투자와 개발이 진행되곤 있다. 공공공간에 대한 투자는 도시마케팅 전략이나 기업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명소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곤 한다(Madanipour, 2004).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도시 삶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잠재적인 요구에서 촉발되기도 하고, 도시 간의 경쟁체제에서 도시매력을 증진시키는 전략으로 추진되기도 한다.

실천적인 영역에서는 공공공간을 형성하는 도시적 변화와 디자인의 조건과 경향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우선

현대 공공공간의 기능 및 성격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형태나 규모면에서 다양해지고 있는 현상과 후기산업도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공공공간이 생겨나는 융합적 공공공간 변화에 대한 논의가 있다(Wall, 1999; Per and Arpa, 2008)<sup>1)</sup>.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공간 디자인에서 요구되는 도시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사례와 그 특징에 관한 논의도 있다(Bullivant, 2007)<sup>2)</sup>. 이론적인 영역에서 공공공간에 관한 논의는 누가 공간을 이용하고 점유하는가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 선택과 배제의 문제가 주를 이룬다. 즉, 공간에 실질적 주권을 행사하는 권력과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다루는 공간정치가 담론의 중심이 된다(Mitchell, 1995; Mitchell, 1996; Zukin, 1995). 공공공간이 상업화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그룹과 개인의 공간적 실천에 따라 형성되고 변형되는 과정에서 현대도시 공간의 균질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도 주를 이룬다(McCann, 1999).

공공공간에 기존 논의의 두 가지 흐름은 나름대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설계 담론의 경우 공공공간이 변화하고 있는 현상을 표피적으로 다루고 있어 공공공간 변화의 본질적인 속성에 접근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설계된 공간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자생적인 공공공간 현상을 다루는 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공공공간에 관한 정치적 이슈에 주목하는 담론의 경우는 과도하게 윤리적 규범에 얽매어 구체적인 현실상황의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도시공간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나

변화 조건으로 수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고전적인 공공공간의 관념에 집착하곤 한다.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 상황에서 태동되는 다양한 조건의 공간의 이슈를 포괄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관점과 시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공공공간과 관련된 실천과 이론의 간극을 극복하고, 규범의 차원과 현실 차원을 관통하는 이론적 기획이 요청된다. 특히 현대 공공공간의 변화된 조건인 혼성적 특성을 보다 세밀하고 미시적으로 해부하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문화인류학의 역공간(liminal space) 개념을 빌어 혼성적 특성의 다층성을 들여다 보고자 한다. 샤론 Zukin(Sharon Zukin)은 역공간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문화와 경제, 시장과 장소 등을 가로지르고 결합하는 공간”이라고 표현하였다(Zukin, 1991). 역공간의 개념이 지니는 특징인 모호성, 경계성, 역전성은 혼성적 특성의 고유한 성질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 유용하리라는 기대가 본 연구의 착상이다. 역공간 관점의 공공공간 해석은 몇 가지 국면의 차별화를 지닌다. 첫째는 역공간의 모호한 특성은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의 이분법을 극복하면서 하나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기에, 보다 공간의 현실조건에 근접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둘째, 역공간은 경계로서 새로운 것이 생성되는 에너지가 충만한 지점이다. 이러한 이해는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이 혼재되어 야기하는 문제점에 천착하기 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찾는데 유용할 수 있다. 셋째, 역공간에서 사회적 의미는 일방적으로 조건이 지워져 있지 않고 열려 있다. 공간의 의미가 구조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개인의 행동에 의해 새롭게 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기존 공공공간 담론의 고착적 인식을 극복하여 창의적 실천에 여지를 열어준다. 이러한 시도는 공공공간에 대한 두터운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이에 효과적인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다. 정리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도시 공공공간의 다양한 지층을 드러내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서 역공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 혼성적 특성을 규명해보는데 있다. 실제 사례를 통하여 역공간으로 해석되는 공공공간의 혼성 특성을 확인해본다. 이를 근거로 공공공간에 대한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인식을 도모하고, 도시 공공공간의 의미와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확보한다.

본 연구는 역공간의 개념을 도시 공공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현대도시 공공공간의 담론과 쟁점을 조망해 보고, 역공간의 개념과 적용에 관한 논의를 점검한 후 이 두 주제의 연결고리를 찾아본다. 이러한 이론적 규명을 바탕으로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보다 상세히 살펴본다. 여기서는 주로 뉴욕의 공공공간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뉴욕시는 공공공간의 규모, 유형, 조성 및 관리운영, 추진체계 등에서 다양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고, 비교적 많은 자료와 연구가 축적되어 있기에 적절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혼성적 특성이 나타나는 공공공간에

주목하기 위함으므로, 공공공간과 반공공공간을 모두 포함하여 사례를 선정하였다.

역공간의 개념을 공간이해에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는 알렉산더 무어(Alexander Moore)의 연구이다. 그는 디즈니월드라는 공간을 소비하는 방식의 여가가 순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해석이다. 테마파크의 사회적 기능은 순례자의 장소처럼 일상 생활공간에서 벗어난 일정구역의 제의공간에로의 경험을 대리로 제공한다(Moore, 1980). 쿼틴 스티븐스(Quentin Stevens)는 도시 공공공간의 새로운 차원의 해석과 발견을 위하여 역공간을 개념을 활용하였다. 그는 역공간은 문지방(threshold)으로서 사이, 내외부의 접점, 중간영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놀이 행태를 발견해준다고 생각하였다. 이곳에서 느슨하거나 의도되지 않은 방식의 공간이용이 촉진되고, 활동적 움직임이 생겨나고 사회적 만남과 교류가 일어나곤 한다. 그는 멜버른, 베를린, 런던에서 공간의 입구, 계단, 테라스 등의 사례로 역공간으로서 공공공간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Stevens, 2007a). 본 연구는 역공간의 개념이 공공공간의 담론에서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시각을 찾아내는데 보다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역공간의 공공공간의 논의에 적용한 이론적 지향점을 설정한 후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공간분석 연구는 추후에 이어질 전망이다.

## II. 현대도시 공공공간의 조건과 역공간 (Liminal Space)

### 1. 현대도시 공공공간의 조건 변화와 쟁점

공공공간은 엄밀히 말해서 ‘공적공간’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의 일부이다. ‘공적공간’이라는 용어에는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한다(Goodsell, 2003). 첫째, 공적 관심이나 정치적 이슈들에 관하여 자유롭게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영역, 즉 공적영역(public sphere)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권력과 헤게모니에 대한 분석이 주요 관심사이다.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공적으로 토론에 부쳐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의미하며, 이러한 전통은 서구 민주주의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둘째는 물리적 공간을 뜻하는 공공공간으로써 도시의 광장, 시장과 같이 개방되고,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지점을 의미한다. 이 두 개념 간 공통점은 공적공간의 개방성, 민주적 정치 생활을 위한 중요성, 그리고 근대화과정에서 그 의미가 소멸되는 경향 등이다.

공적영역과 관련하여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사회구조나 사회영역 차원에서 논의되는 거시적인 관점이다. 둘째로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 1989)의 의사소통이론과 관련된 논의되는 공공성에 관한 논의이다. 셋째로는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와 실천

행위로 나타나는 공공의식에 관한 논의이다. 정리하면 사회적 관점에서 공공성은 결국 '최적의 의사소통상태'이고 공공영역의 주체는 시민대중이다. 이는 공공성의 정치적 역할과도 관계되는데, 공공공간을 헤게모니의 경합영역이자 사회운동의 장이라고 이해하는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주요 내용이다(고길섭, 2001: 42-58).

반면 공간에서의 공공성의 본질적인 특성은 '공통성'과 '공론성'이다. '공통성'이란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도 제한 없는 접근성과 이용권을 의미한다. '공론성'이란 정보의 공개와 자유로운 접근, 자유로운 표현과 소통, 권위나 음모가 아닌 자율적이고 공개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한 지식 생산과 소통의 장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공공공간의 문제는 근접성, 다양성, 접근성의 관점에서 논의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접근성의 넓은 범주에서는 타인을 만나고 서로 시선을 주고 받는 장소로서의 공공공간의 특성과 관련된다. 리처드 세넷(Richard Sennett)의 경우 공공공간에서 서로 무의식 중에 서로의 눈빛을 피하는 현상을 예를 들며 공공공간은 오히려 인간이 합리성을 가장하여 비인격적임을 드러내는 곳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마셜 버만(Marshall Berman, 1971)은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공공공간의 위대함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서로 유리창 너머로 은밀히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대면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힘을 부여해 준다는 것이다(박경환 역, 2009). 이와 같은 논의들은 타인과의 교류와 만남이 공공공간의 본질적인 특징임을 반영한다. 이 두 가지 차원에서의 공공성은 모두 누구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가장 폭넓은 공개성, 혹은 모두가 협력하여 만들어내어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공동성을 갖는 세계를 지칭한다(Madanipour, 2004).

최근 들어 이러한 논의의 관심은 '현대 도시에서 공공공간이 과연 존재하는가, 또는 공공성이 여전히 그 고전적 의미를 담보하고 있는가'에 집중된다. 이제까지의 현대 공공공간에서 나타나는 공공성에 관한 긍정적인 견해보다는 비판적 견해가 주로 이루고 있다<sup>3)</sup>. 자본주의 체제의 도시에서 공공공간이 사유화되고 상업화되는 것과 관련하여 '진정한 공공성의 소멸'이라는 논의와 눈에 보이지 않는 제한된 접근성에 대한 논의로 축약된다. 예컨대 자본주의의 발흥 때문에 공적 인간이 몰락했다는 리처드 세넷(Richard Sennett, 1992)의 주장이나 시장 경제적 생활로 인해 시장 정신이 인간 마음의 구조를 포섭하였다고 비판하는 칼 폴라니(Karl Polanyi, 2001)의 주장을 들 수 있다. 마이클 소르킨(Michael Sorkin) 이러한 공간들을 진정한 공공성이 결여된 암암리에 소비를 촉진하는 테마파크에 비유하며 이를 '공간의 디즈니화(disneyfying of space)'라고 표현하였다(Sorkin, 1999). 돈 미첼(Don Mitchell)은 공공성이 퇴색한 쇼핑몰이나 경비원들이 근무를 서고 있는 공간들의 예를 들어 공적공간의 사유화와 상품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

고 이를 비판한다. 현대도시에서의 개인성의 힘을 좀 더 극대화하여 현대의 공공성의 본질에 접근하는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는 현대 도시 공공공간의 본질적인 특성은 정치, 구경거리, 비즈니스 행위 등과 함께 일어나거나 혼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Mitchell, 1995: 116). 이는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은 물리적으로 고정된 경계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작용하며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공적영역 속에 사적인 것들이 무작위로 산재해 있고, 직접적으로 가시화되어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정 장소에서 공공성의 문제는 공적영역 속에서 사적인 요소들의 경계를 조절하거나 인터페이스를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윤미섭, 2004).

## 2. 역공간(Liminal Space) 및 역치성(Liminality)의 개념 및 유사개념

현대적 공공성에 있어 공적 사적 경계에 대한 논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등장했다. 이러한 경계 공간들은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고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공공영역에서의 공공성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파악하여, 이들이 공간에 투영된 사적영역들의 사례들을 기반으로 한 정의들이다. 예컨대 2004년 바르셀로나 포럼에서는 이를 집합적 공간(Collective Space)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개인 간의 상호작용과 자유로운 관계를 공공공간에 수용하게끔 하는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 정의한다<sup>4)</sup>. 여기서 집합적 공간은 비록 민간이 소유한 시설이거나 사적 이용을 남기기 위한 지라도 공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공적인 의미를 지닌 공간을 의미한다. 메리 앤(Mary Ann)은 사적인 공간이지만 공공공간의 이데올로기적 개념을 뛰어넘는 공간을 메타 스페이스(Meta-Space)라고 정의한다. 이는 자유공간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는 곳으로, 메타스페이스 내에 배치된 공공성을 함께 겪으면서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을 습득하게, 공적인 기술, 협업의 가치, 시민생활의 미덕을 획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Mary Ann, 1999). 이러한 공간들은 '문화적 공공영역'이라는 용어로도 표현되기도 한다. 다만 공공성과 개인성의 이분법적 경계가 무너진 장소들은 문화표출의 대표적 장소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수용하는 듯하나, 그 이면에는 자유시간과 감성의 상품화의 전개에 상업적인 소비문화의 팽창으로 인해 문화를 사적인 거래 행위의 일환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데서 기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심광현, 1998: 59-60).

둘째는 물리적인 의미, 즉 공공공간에서의 공공성의 의미가 좀 더 강조된 형태의 논의들이다. 건축도시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공공성이 나타나는 공간으로 매개 공간을 대상으로 많이 다루고 있다. 매개공간은 전이공간, 중간공간, 반공공공간 등 다

양하게 사용되어지며, 일반적으로 매개는 둘 이상 존재할 때 그 사이를 연결하여 서로 간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을 뜻한다. 매개 공간의 경우 기본적으로 건물 내에서의 로비공간이나 중정과 같은 조경 공간, 입구 부분 등으로 나타나며, 도시에서는 반 외부공간을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에 배치하는 형태 등을 들 수 있다. 레이 올덴버그(Ray Oldenburg, 1999)는 '제 3의 공간'의 개념을 구축하면서 미국의 주택의 건물 앞 입구 공간에 주목한다. 개인적 공간이지만 공동체의 만남과 교류가 일어나는 지점이 되기도 한다. 그는 '제 3의 공간'을 공동체의 일원과 소통하는 다양한 성격의 공간으로 확장한다<sup>5)</sup>.

반면, 역공간은 간단히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다. 역공간은 공적영역이나 사적영역으로 구분될 수 없는 애매한 중간 상태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부각한다. 따라서 여기서 기반은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영역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공공공간과 공공영역의 분야에서 담보하고 있는 공공성의 의미와 구분은 없어진다. 역공간의 핵심적 성격이라 할 수 있는 역치성(liminality)이라는 개념은 인류학자 빅터 터너(Victor Turner)가 고안하였다. 그는 주어진 자극이 의식되는 한계를 뜻하는 자극역(limen)이라는 개념을 빌어 '역'을 "한 사회집단이 하나의 사회적 지위 혹은 카테고리에서 다른 사회적 지위로 옮겨갈 때 겪는 통과 의례"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Zukin, 1991). 따라서 역치성(liminality)은 현 위치를 버리고 다른 위치를 취하기 이전의 중간상태, 즉 문턱이나 변화하는 상황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 과정에서 통상적인 사회적 규범은 중지된다. 왜냐하면 그 집단은 새로운 행위를 규정하는 다른 지위를 아직 채택하지는 않았어도 그 기존의 지위는 이미 포기했기 때문이다. 인류학에서는 전통사회의 제의적 주제가 일상적 삶과 분리된 상태에서 경험하는 내면적 변화의 단계를 의미한다(Turner, 1982)<sup>6)</sup>. 현대 도시의 공간은 자연과 인공, 공적 가치와 사적 이용, 범세계적 시장과 지역적 장소 사이로 스며들어가 이 둘의 영역을 혼재되면서 역치성을 지니게 된다. 이는 전통적 지역의 복원이나 재개발, 자본주의 개발논리로부터 추상화된 것으로, 분리(separation), 전이(transition), 통합(incorporation)의 3단계를 거치면서 특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역치성을 지니고 있는 역공간에 대한 기존학자들의 평가는 호의적이지 않다. 주킨은 역공간의 형성이 최근의 현상이 아니라 19세기 후반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가시화되어 포스트모던시대에 극에 달한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주킨(Zukin)은 역치성의 의미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어떠한 지침 없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어는 누구의 영역도 아닌 것(Zukin, 1991)'으로 규정한다. 또한 소비 공간을 역공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며, 소비공간에 문화공간이라는 이미지가 윤색되어 공간의 역치성을 재현해내고 있는 거리축제나 버스

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에 존재하는 사업광고, 지하철역과 연계된 백화점, 자가용으로 점유된 도로 공간 등을 역치성이 드러나는 역공간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애그뉴(Jean-Christophe Ageton)는 역치성을 시장이라는 역공간을 설명하는데 중요하게 도입한다. 시장이란 전환(transition)과 교환(transaction)이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구역이며, 주요 사회제도 사이에 애매하게 서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다(Zukin, 1991). 공공공간이지만 사적인 행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 두 영역의 혼재가 가장 극명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역치성은 현대의 공공공간을 설명하는 다른 유사 개념과 달리 현대의 공공성을 다차원적으로, 혹은 폭넓은 설명이 가능하기에 오히려 유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유사 개념들은 공공영역에 대한 공간적 의미를 기반으로 하여 그 위에 윤리적 혹은 특징적인 사회적인 현상을 부가하여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공적공간이라는 의미에서 공공공간과 공적영역이라는 의미에서의 공공성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역공간은 인간 상호적인 만족과 성취를 얻으려는 특정 목적이 아니라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상태에서 대안을 찾아가는 공간으로, 이쪽도 저쪽도 아닌 새로운 공간이므로 창조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역공간에서는 시민 간의 자율적, 내성적이며, 다른 어떤 공간이나 시간보다도 사회적 역할과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인적 유대가 구축되는 공동체의 형성이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역공간인 현대적으로 잘 관리되고 새로운 형태의 소비와 레저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쇼핑장소는 역공간의 시장이 현대적으로 변환한 예로써 가장 대중적인 도시 공공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통제되고 질서가 없는 도시의 거리나 시장지역보다는 보안과 안전이 확보되는 상업적 쇼핑몰은 한편으로 개인이 사회와 만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역공간은 공공공간을 사유화 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공적공간을 시민들이 상호소통하고 만나고 삶을 즐기는 공간으로 더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III. 공공공간에서 역공간 개념의 적용과 유용성

본 사례에서 다룰 대상은 크게 공공공간에 속하는 공원(유니언 스퀘어, 브라이언트파크), 반사적공간에 속하는 건축물 내부 공간에서의 매개공간(소니플라자, 트림프타워), 반공공공간에 속하는 가로광장(타임스퀘어)이다. 먼저 공원 들 중에서 역공간의 특성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사례로 뉴욕의 브라이언트파크(Bryant Park)를 들 수 있다. 브라이언트파크는 1990년과 1992년 사이 대대적인 보수 과정을 겪게 된다. 당시 재조성 주체는 뉴욕시 당국이 아니고 민간단체인 '브라이언트 공원 복원

협회(Bryant Park Corporation)'이었다. 이유는 뉴욕시의 재정 위기와 운영관리 예산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물리적 디자인을 리모델링하면서 관리주체는 공원 내에 이벤트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였다. 예컨대, 음악 콘서트, 패션쇼, 예술 공예품 전시회 등을 유치하고, 공연 매표소, 책, 화훼 가판대 등을 공원 내에 도입했으며, 여름에는 옥외 카페를 두도록 했다. 현재 브라이언트 파크에서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공공성은 공원의 외형적 모습을 넘어 상시 일어나는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표출된다.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통해 사람들에게서 공동체적 행위를 촉발시킴으로써 공원이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공공간임을 계속해서 각인시킨다. 더불어 이러한 공원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기 많은 프로그램들 대부분 주변 기업들과 연계되어 있다. 예컨대 공원 안에서 무선인터넷(Google)이 가능하고, 책 읽는 공간(HSBC) 및 파라솔(Evian)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 및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더불어 공원 안의 다양한 상업 시설은 오히려 공원을 더욱 활기치게 만드는 적극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브라이언트 파크는 개인 시민들의 다양한 취향을 민간부문의 개입으로 충족시켜 주면서 공동체적 공유를 하는 역치성이 존재한다. 또한 이동식의자들을 매개로 여럿이 있되 개인적인 자유로움이 보장받는 분위기가 개인과 공공의 혼재하는 역공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다른 사례로 유니온 스퀘어(Union Square)는 뉴욕 맨해튼의 대표적인 공원 중 하나이다. 1980년대 이후 공원의 관리 운영에 지역 비즈니스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유니언 스퀘어는 운영의 사유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장 진정성 있는 공공공간의 하나이다. 실제로 유니온 스퀘어 장소의 역사를 살펴보면 19세기말부터 노동조합의 시위와 집회의 중심지였다. 이러한 장소적 전통은 오늘날에도 일부 남아 있다. 유니언스퀘어에서는 주말마다 농촌에서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농산품을 직접 파는 그린 마켓이 열린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은 장터와 같은 이곳의 분위기를 즐기고 실제로 저렴하고 질 높은 농산품 및 수제품을 구매하기도 한다. 원래 이 지역은 맨해튼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지 않고 자유 전문직종,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지역의 주민들은 유니언



그림 1. 브라이언트 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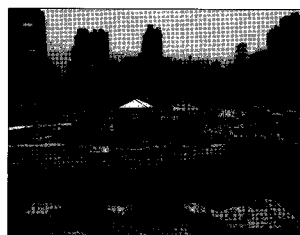


그림 2. 유니온 스퀘어

스퀘어 주변의 상업적 부흥에 그리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일부 이 광장에 고급 레스토랑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 한 경우는 있었지만 저항적 장소정신이 강한 이 지역주민들은 민간에 의해 운영되어 공공공간에 사적인 침투가 나타나는 역공공간을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킨(Zukin)은 이 공공공간의 패러독스는 민간의 개입은 공간을 더욱 매력 있게 만들고, 정부의 개입은 보다 억압적이고, 이데올로기에서 편협하고 모두를 대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 지적한다. 그는 이어 공공과 민간의 사이의 민주적 대안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운영관리를 창조해내는 것으로, 토지주나 시정부가 아닌 기업과 지역상인, 그리고 시민들이 협력하여 책임 있게 관리하는 집합적 운영방식이라고 말한다. 즉, 공공이 운영하면 공적인 가치를 대변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사적인 가치를 대변하리라는 것도 하나의 편견이라는 점을 지킨은 지적하고 있다(Zukin, 2010). 공공과 민간의 영역은 이렇듯 역치성의 개념처럼 서로 다른 영역의 가치체계와 지향점이 역전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반면, 민간이 소유가 되는 건축물 내부의 반사적공간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적영역을 의미하는 바가 컸지만, 여기에 공적 성격을 띤 외부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역공간적 성격을 띠게 된다. 트럼프타워(Trump Tower)는 복합 주거 상업공간으로 실내형 아트리움 공간이다. 트럼프타워의 경우 사유화된 공공공간이 공공에게 제공되면서 인센티브 조닝으로 인해 용적률을 항상 조정하게 되는 윈-윈 효과를 창출했다. 실내 아트리움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는 공간으로, 실내에 식물과 휴게를 위한 벤치 시설, 카페 등이 조성되어 있다. 이들 공간에서는 공공성의 본질 중 첫째 요소로 여겨지는 접근성에 있어 여러 형태의 제한이 나타난다. 관리를 위한 사용 시간 제한뿐만 아니라, 행위의 제한이 함께 제시되기도 한다. 따라서 공공성의 특성에서 제외되었던 제한 행위는 역공간인 이 장소에서는 나타난다. 뉴욕에 위치한 기업 소유의 소니플라자(Sony Plaza)의 경우도 '공공공간'임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라는 이용 시간 제한뿐만 아니라, 일련의 행위의 제한을 내세우고 있다. 물론 이는 공익의 차원을 고려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성의 범주를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소유자 권한의 필요악의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소니플라자는 원래 AT&T의 건축물의 소유주가 소니로 변경되면서 외부 아케이드를 포함한 인테리어를 재단장하면서 반사적공간 형태의 공공공간을 확보하였다. 아케이드의 대부분을 상점으로 바꾸는 대신 55번가와 56번가를 잇는 건물 뒤편 공간에 3층 높이의 유리천장을 설치하여 유개보행로를 만들었다. 이러한 반사적공간에서 나타나는 외부프로그램의 내부화는 인위적으로 공동성을 끌어내기 위한 형태를 많이 나타내는데, 주로 건축물 내에 연계되어 있는 상업 시설의 단기

이벤트를 이용하여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이벤트 주체는 공공공간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행위에 비해 일단은 사적 목적을 위하여 방문자의 공동성을 적극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유도된 공동성은 임시적인 집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건축물 소유 업체 측에서 물리적 외에 비물리적인 형태로도 적극적인 활용을 하게 된다. 상업 시설 홍보 마케팅의 장소로 이용하거나 연계되어 있는 상업 시설의 수용면적을 받아들이는 보조 장소로 활용하게끔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벤트의 경우, 앞서 살펴 본 브라이언트 파크에서 일어난 다양한 형태의 공동성 증진을 위한 이벤트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업의 홍보를 위한 이벤트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흔히 살펴 볼 수 있다.

역공간적 성격이 나타나는 민간소유의 반사적공간의 경우, 무조건 사익만을 추구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개인성을 어느 정도로 수용하는가가 관건이다. 즉, 공공성과 개인성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나치게 개인성이 강조되는 경우 사적공간의 느낌을 강하게 주게 된다. 트럼프 타워 내의 공간의 경우에도 공개공지에 의한 유계보행로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이고 사적인 성격이 강하다. “호화로운 인테리어 디자인과 더불어 고급 상품과 레스토랑이 들어선 지하와 지상층의 공간은 고급 쇼핑물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공간이라는 느낌보다는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느낌이 강하다...(중략)..트럼프 타워의 공간은 상업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모든 시민을 위한 열린 장소라기보다는 특정한 계층을 위한 장소로서의 성격이 강하다(이상민 등, 2008 : 91).” 즉 소유자의 자율 의지에 따라, 사적 공적 특성이 조절되고 이는 이용자에게도 그 영향이 그대로 반영된다. 따라서 공공공간 혹은 사적공간이라고 느끼는 기준은 이용자에 의해서 차이가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반사적공간에서는 공공

성이 지니는 개인의 자율성, 익명성의 의미를 모두 적극 수용하는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다양한 방문객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내부 요소들의 가변적 특성을 지향한다.

마지막으로 반공공공간으로 볼 수 있는 가로광장인 뉴욕의 타임스퀘어(Time Square)는 극장들이 모여 있는 구역으로 42번가 주변 여러 블록에 걸친 가로와 티켓부스가 있는 중앙의 파더 더티 스퀘어(Father Duffy Square)를 포함한 일대이다. 이곳은 도시 한 구역이 건축물의 집합체와 공공영역이 가로와 도로, 광장으로 포함한다. 그런데 이곳을 하나의 공공공간이라고 인식하는 이유는 하나의 정체성 있는 특성이 분명하고, 때로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실제 사람들이 쉬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상업광고물이 밀집되어 있고 디지털전광판이 도시의 스펙타클을 형성하고 있으며, 1월 1일에는 대규모 인파가 군집한 카운트다운 등이 이루어진다. 2008년에는 티켓부스를 리모델링하면서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전망 공간을 설치하여 실제 머물 수 있는 공공공간도 조성되었다. 타임스퀘어는 개별적인 민간건축물과 광고물의 집합경관이다. 공공적인 가치를 의도적으로 지향하지도 않고 경관이 통합적으로 조율되지도 않지만 특정 기간인 도시 축제 시 전체 민간 주체가 협력하는 경우도 있다. 타임스퀘어의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재개발과정에서 뉴욕도시개발공사는 이 지역을 황폐하고 낙후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유색인종과 저소득층을 몰아내고 백인과 고소득층을 유입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재개발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침해를 희생한 공간변화는 과연 공공적인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가지게 한다는 주장도 있다(Miller, 2007). 그러나 새로운 타임스퀘어는 하나의 이미지 중심의 공공공간이다. 사적영역이 집합적으로 형성된 경관에서 공공적인 소통의 가능성을 찾아야 하는 역공간의 하나의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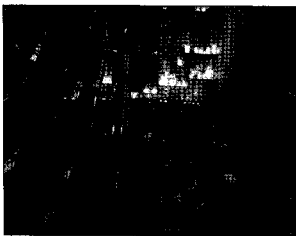


그림 3. 트럼프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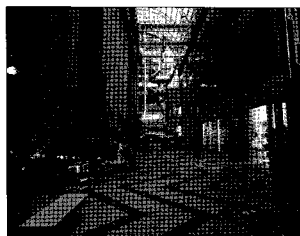


그림 4. 소니플라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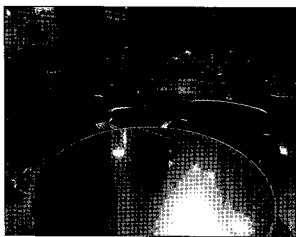


그림 5. 소니플라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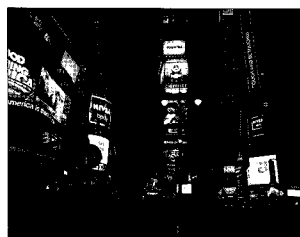


그림 6. 타임스퀘어

#### IV. 역공간의 관점으로 조망한 공공공간의 새로운 지평

역공간의 개념으로 조망한 공공공간의 담론과 사례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첫째로는 지금까지의 공공공간의 논의는 주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혼재되어 나타나는 현상에 치중되었다. 이에 따른 공적영역의 사유화로 생기는 공간 접근의 선택과 배제의 문제, 접근성에 대한 불평등 등의 문제 등이 논의되었고, 이 두 영역을 성공적으로 결합하게 만드는 계획이나 설계프로세스의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역공간은 공적영역이나 사적영역으로 구분될 수 없는 애매한 중간상태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부각한다. 공공공간에서 사적공간까지 반공공공간이나 반사적공간까지 순차적인 영역이

존재하는 영역 구분이 흔히 통용되곤 한다. 그러나 실제로 공공공간을 하나의 연속체(continuum)이고 공적, 사적영역의 구분은 체험하는 입장에서는 잘 느끼지는 못한다. 뉴욕의 브라이언트파크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던, 사유화 논쟁을 중요하게 느끼지 않는다. 일상적인 공원 이용의 관점에서 얼마만큼 어메니티를 제공하는가 개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다른 사례로는 실제로 두산타워의 전면부에서 공연과 이벤트가 벌어지는 경우 원래의 공공영역에서 사적영역의 구분이 정지된다. 이도 저도 아닌 중간상태의 공공공간이 일시적으로 형성된다. 여기서는 건축물 앞의 공개 공지이나 보도, 건축물의 내부의 공간 구분이 의미가 없어진다. 공공공간에 늘 새로운 행위가 발생되고, 장소가 형성되곤 한다. 공공공간의 특성 중의 하나는 공공적 성격을 만드는 것이 행위나 이벤트로 인한 공간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이다.

이는 공공공간을 보는 관점의 확장과 교정을 요청하는 일일 것이다. 이는 최근 공공공간에 논의에서도 부각되는 주제이다. 마가렛 크로포드(Margaret Crawford)는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새로운 공공공간이 거리가판대(street vendor)나 주차장 세일(garage sale) 등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한다(Crawford, 1996). 제프리 하우스(Jeffrey Hou, 2010)는 기존의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개념의 공공공간에서 벗어나 반란의 공공공간(insurgent public space)이라 치칭하였고, 여기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새로운 공공공간은 휴식이나 점거, 상행위 등에 의해 일시적 점유된 광장이나 가로의 장소, 일시적 이벤트가 일어나는 장소나 커뮤니티가든 등의 자생적으로 만드는 공간으로 의미한다. 홍콩 HSBC의 1층의 필로티로 개방된 공간은 평일에는 도시민의 이동공간이지만 일요일은 한시적으로 필리핀 취업여성들이 커뮤니티 모임장소로 전환된다(Hou, 2010). 이러한 일시적 공공공간의 경우는 기존의 질서에서 분리되고 전환하고 재통합되는 과정적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역공간의 개념은 도시 내 공공공간의 지형을 새롭게 구축하는 조망체계를 제공하여 준다.

둘째로 역공간은 제의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가치가 순간적으로 전복되고 역할이 역전된다. 역전가능성이 역공간의 또 하나의 특성이다. 이는 공공공간의 혼성적 특성을 보는 또 하나의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고전적인 공공공간의 의미는 주로 정치적 공론의 장, 민주적인 소통공간 등이 중심이었다. 실제 공간도 시장, 회합, 제의 및 행사의 기능 융합이 하나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차알스 테일러(Charles Taylor)의 지적대로 현대도시에서는 공공공간이 특정 장소를 넘어서(metatopical) 존재하게 된다(Madanipour, 2004). 오늘날 공공공간은 다양한 차원이나 형식으로 존재한다. 사이버공간이 대표적인 예로서 논쟁과 소통, 정치적 이슈의 토론이

이루어지곤 한다. 전통적인 공공공간의 정치적 기능은 사이버공간으로 이동하고 공공공간은 다른 기능이 남게 된다. 즉 스펙타클의 장으로서 새로움과 자극, 사람들과 시각적으로 교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이에 수반되는 먹을거리와 휴식 공간 등의 어메니티가 요구된다. 이러한 달라진 상황과는 무관하게 공공공간에 대한 기존 담론은 주로 고전적인 공공공간의 가치를 기반에 두고 있어 현대의 공공공간을 보는 관점에 항상 비판적인 입장만을 취하곤 하였다. 오늘날 공공공간이 이미지 위주의 공간 및 서비스 제공의 성격으로 바뀌었다면 이를 어느 정도 현실적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공공공간이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식음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일정 수준의 새로운 콘텐츠가 제공되어야 한다. 브라이언트 파크의 커피숍이 공간을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에게 편안한 정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공공공간의 활성화가 오히려 사적영역인 상업 활성화로부터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공간을 카푸치노로 익숙하게 하는 현상(domestication by cappuccino)은 커피 파는 곳이 들어서면서 공간의 미학적 업그레이드와 심리적 편안함이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Zukin, 2010). 서울의 테헤란로 거리의 경우 80년대 초반에 형성되었을 경우 1층은 건물 로비로서 거리의 보행이나 일상적 라이프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2000년대부터 등장한 커피전문점들이 들어서면서 가로문화가 활성화되고, 이제는 서울의 중심부 곳곳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띤다. 즉, 공공공간인 가로문화의 활성화는 공공영역이 아닌 오히려 민간영역을 원활하게 기능하게 할 때 달성될 수 있다. 도시 공공공간의 스펙타클화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변화일런지도 모른다. 존 해니건(John Hannigan)는 현대 도시가 광고,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이 일상공간속에 결합되어 소비공간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추세는 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공공의 위한 공간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타임스퀘어나 세련된 디자인의 아트 갤러리나 공연장과 카페 등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위험이 없는 위험(riskless risk)을 위한 안전한 상태의 흥분을 제공한다고 지적하였다(Hannigan, 1998; Zukin, 2010). 공공공간이 보다 더 이미지 중심으로 스펙타클화되고 상업공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지원되면 이러한 추세를 수용하고 민간부문과 결합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이다. 사적영역에 보다 주목할 때 공적공간이 향상되는 패러독스한 상황이 오늘날의 공공공간이 처한 하나의 여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공공공간의 논의는 주로 공간이 담보해야 할 기능적, 심미적, 윤리적 측면에 관심이 있었다. 실제로 공공공간은 다양한 경험의 이용행위를 수용하고 새로운 여지를 열어준다. 즉, 공공공간에서 요구되는 잠재적인 수요는 기능적이나 실용적 차원에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놀이 행태를 통하여 표현된다. 공공공간에서는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것, 우연적이고 자유로운 것이 발생한다. 이러한 변화들이 공공공간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재편되기도 한다. 다양한 유형의 공공공간에서 놀이 행태를 관찰하고 포착하면 잠재적 요구와 공간변형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Stevens, 2007a). 역공간의 개념은 일상에서 벗어나 비일상 예로의 전환과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전제로 한다. 역공간은 경계지대를 넘다들면서 순간적으로 진복하고 원상태로 복원한다. 이러한 경계 체험은 기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방어기제이기도 하지만, 장차 새로운 질서재편을 예고하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 스티븐슨은 역치성과 놀이가 유사한 성격을 지니며, 사회적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Stevens, 2007b). 역공간적 관점으로 보는 공공공간의 이해는 놀이를 중심으로 자생적이고 우연적이며 공공공간의 변형과 생성에 보다 주목하는 태도와 그 입장을 공유한다. 놀이의 관점의 극단적인 예는 스케이드 보더들의 가로지르는 도시공간이다(Borden, 2003). 스케이드 보딩은 건축물이나 공공공간이 예측가능하거나 의도한 바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가치체계와 기능을 거스른다. 도시공간을 몸으로 움직이고 구체적인 공간 물성과 다른 방식을 만난다. 스케이드 보더들은 의도되는 기능을 거스르고 기획된 공간의 질서를 횡단하면서 새로운 공간 인식을 촉진한다. 역공간의 관점은 현대도시 공공공간을 보는 시각에 긍정적인 측면의 가능성을 지니한다. 공공공간에 대한 담론은 주로 현대에는 공공공간의 의미가 퇴색되고 변질되었다는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지만, 공간적인 실천은 다수에 의해 경합하고 변형되고 다시 새로운 구도 속에 배치되고 하는 숙명이다. 공공공간의 논의는 상실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역공간의 개념적용은 새로운 유형의 공공공간의 지점을 발견하고 경계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변화의 힘을 찾는 데 유용해 보인다.

## V. 결론

본 연구는 현대 도시 공공공간의 특성에 관한 역공간 관점의 해석이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 담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공공공간에 관한 논의 전개를 위함이다. 기존의 담론은 주로 공공성의 입장에서 현대 도시공공공간의 한계를 지적하고 비판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었다. 혹은 공공공간의 변화와 관련된 가치중립적인 계획과 디자인의 문제를 다루는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현대 공공공간의 문제를 다분히 이념적으로 접근하여 비판적 조망에만 머무는 것은 복합적인 현실공간의 실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다른 한편 공공공간에 관한 실질적인 계획과정 또는 표면적인 디자인에 관련된 이슈만으로는 공공공간의 핵심쟁점에 접근할 수 있지 못하다는 인식에

서 출발하였다. 역공간으로서 공공공간에 관한 논의는 기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적 지평을 열어 준다.

현대 도시공공공간은 범주는 계획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법적이거나 제도적 경계보다 유연하고 변동가능한 확장성이 있다. 공공공간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이고 가변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공공공간이라는 엄격한 성격 규정도 공간보다는 거기서 벌어지는 활동과 행위를 기준으로 인식할 때는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을 넘어서 유동적 지평을 그린다. 역치성과 역공간은 이러한 공공공간의 조건과 특성에 이해에 유용하다. 즉, 영역 자체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연속성을 지닌다는 점이 부각되고, 고정적인 것이 아닌 시간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속성을 지닌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러한 관점과 태도는 현대 공공공간의 확장과 재인식을 수반한다. 공적과 사적이라는 개념 사이의 경계는 모호하고 침투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대 여러 공간에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뒤섞이는 현상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현대의 새로운 유형의 공공공간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많은 경우 역공간적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다양한 공간들이 평가는 엇갈린다. 상업공간의 공공영역은 상업적 논리가 지나치게 배태되어 있고, 통제와 감시 등으로 인하여 진정성이 있는 공공영역에 못 미친다는 견해도 있다. 공공의 주체가 되어 조성되고 운영되는 공공공간의 경우 민간 자본이 투자되어 상업화되는 경향을 지닌다. 자연히 시장논리에 편승하다 보니 공공공간의 본질이 변질되었다는 우려도 낳게 한다. 반면 거주자들이 만들어가는 다양한 규모와 차원의 공공공간은 진정성은 존재하지만 다수의 보편적인 지지와 동의를 받는가에 대한 확신은 미약할 수 있다. 결국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결합하는 지점에서 모순도 갈등도 존재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이 존재한다. 구조적인 조건이 압도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행동에 의해 새롭게 중재될 수도 있는 여지 또한 상존한다.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상호 관계의 접점을 찾는 일이 우리의 과제이다. 사실 역사적으로 공공공간을 형성하는 데 성공한 파리의 샹젤리제와 같은 가로도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이 서로 긴밀하게 공생하도록 공간 기획이 이루어졌다. 카페와 같은 상업적 공간은 공적인 거리를 점유하면서 가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로(boulevard)와 같은 공공공간의 민간 영역에서 사람과 상품 등이 자유롭게 순환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여 주었다. 19세기 중반 오스만(Haussmann)이 파리를 개조하면서 기획한 것은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의 공생적 관계를 절묘하게 설정한 것이다(Harvey, 2006).

공공성의 진정한 구현이라는 이념적 도그마를 극복하고 공공공간의 역공간적 특성을 인정하고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때 공공공간으로서 효용성을 더욱 발휘할 수 있다. 현대도시 새로운 형태의 공공공간은 다

차원적이고 다면적이다. 이러한 공간들은 많은 부분 역공간의 성격을 지니고 여기에서 새로운 문화 융합의 가능성이 있다. 공공공간에서 표출되는 공동의 문화 자체가 잠재적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면 그 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윤리적 잣대를 넘어서 공공공간이 지닌 현실적 조건과 변화하는 가치를 담아내는 전향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도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차원의 경험은 공공공간을 통하여 가능하다. 오늘날 공공공간의 여러 모습은 과거 인식의 틀로서 조망하기 어렵다. 공공공간이 때로는 주민들의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대안적 커뮤니티의 장일 수도 있고, 상업적 스펙타클이 지배하는 이미지 지향의 소비공간일 수도 있다. 그 형태와 성격이 어떠한 공공공간의 경험은 도시생활에서 카타르시스와 감동을 경험하게 하는 역공간이다. 다양한 층위의 공공공간이 잠재성을 찾아내고, 사람들과 커뮤니티가 요구하는 바를 수용하여 이를 적절하게 변신하게 할 때 도시 공동체의 바람직한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 주 1. 오로라 페르난데 페(Aurora Fernandez Per)와 자비에 아르파(Javier Arpa)는 최근 세계 도시의 다양한 공공공간 프로젝트의 유형을 도시주변부 공간(peripheral voids), 수변 공간(waterfronts), 산업부지(industrial areas),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s) 등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류한다. 이러한 유형들은 기존 공공공간인 광장, 공원, 가로 등과 얼마나 다른 양상을 지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 주 2. 루시벌리번트(Lucy Bullivant)는 최근 유럽에서 공공공간에 디자인에 있어 조정분야의 존재가 부각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상업개발자들이 조정자들이 만드는 공공공간을 길거리의 커피숍과 같이 매력적인 도시의 중요 상품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유럽도시의 공공 및 민간 클라이언트들은 도시에 명료성을 창출하고, 다문화 도시의 다양한 계층의 이용을 수용하는 다층적이고 유연한 공간을 요구된다고 요청하고 있고, 조정가와 도시설계가들은 이러한 잠재적 요구에 부응하는 디자인을 창출하고 있다.
- 주 3. 이와 같은 현대 사회의 공공공간 소멸에 대한 담론을 마가렛 크로포드(Margaret Crawford)는 '상실의 서사'라고 말한다(Margaret Crawford, 2005).
- 주 4. 집합적 공간은 CCCB(Centre de Cultura Contemporània de Barcelona)에 의해 '비록 민간이 소유한 시설이거나, 사적 이윤을 남기기 위해 할지라도 공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공공적인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정의된다(<http://urban.cccb.org/prize>).
- 주 5. 그는 현대도시를 세 가지 공간으로 구분하면서, 제 1의 공간은 사적인 공간으로, 휴식과 여가를 위한 가정, 휴양지를 의미하며, 제 2의 공간은 공적인 공간으로, 생업을 위한 작업장, 사무실을 나타내며, 제 3의 공간은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공간으로, 휴식과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공간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현상은 외부와 소통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유지되는 공간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공간형 콘텐츠가 증대하는 현실에서 제 1, 2의 공간이 '제 3의 공간'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도시공간에 나타난다.
- 주 6. 이는 원래 정신분석학에서 빌려온 용어이기도 하다. 무의식도 아니고 의식도 아닌, 이를 태면 무의식 쪽에서 보면 의식이고, 의식 쪽에서 보면 무의식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그렇다고 소속되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중첩적이고 알곳은 영역으로, 비유컨대 기연

불연(其然不然)의 곳으로 칠 수 있는 지대를 뜻한다.

## 인용문헌

1. 고길섭(2001) 사회운동의 새로운 가로지르기: 공공영역과 공공성의 정치. 문화과학 23: 32-60.
2. 박경환 역(2009) 사회지리학. 서울: 논형. pp. 219-259. Valentine, Gill.
3. 심광현(1998) 시민사회의 위기-문화적 공공영역의 출현, 21세기 한국사회와 공공영역 구축의 전망 토론회 프로시딩. pp. 31-45.
4. 윤미섭(2004) 인터페이스에서 나타나는 공공성을 적용한 신촌 집합주 거계획.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이상민, 차주영, 임유경(2008) 도시 공공공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 정립 및 현황 조사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6. Akkar, Muge(2005) Questioning the publicness of public spaces in postindustrial cities. Traditional Dwellings and Settlements Review. 14(2): 75-91.
7. Berman, Marshall(1971) The Politics of Authenticity: Radical Individualism and the Emergence of Modern Society. London: Allen and Unwin.
8. Borden, Lain(2003) A Performative Critique of the City: The Urban Practice of Skateboarding, 1958-98. The City Cultures Reader. London: Routledge. pp. 291-298.
9. Bullivant, Lucy(2007) Activating nature: The magic realism of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in Europe. Landscape Architecture: Site/Non-Site. pp. 77-87.
10. Crawford, Margaret(1996) Contesting the public realm: Struggles over public space in Los Angeles. Journal of Architectural Education. 49(1): 4-9.
11. Crawford, Margaret(2005) Blurring the Boundaries: Public Space and Private Life. Everyday Urbanism. New York: The Monacelli Press. pp. 22-51.
12. Goodsell, C. T.(2003) The concept of public space and its democratic manifestations.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33(4): 361-383.
13. Habermas, Jurgen(1989)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Cambridge: MIT Press.
14. Harvey, David(2006) The Political Economy of Public Space.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pp. 17-34.
15. Hannigan(1998) Fantasy City: Pleasure and Profit in the Postmodern Metropolis. London: Routledge.
16. Hou, Jeffrey(2010) (Not) your everyday public space. Insurgent Public Space: Guerrilla Urbanism and the Remaking of Contemporary Cities. London: Routledge. pp. 1-17.
17. Madanipour, Ali(2004) Marginal public spaces in European cities. Journal of Urban Design 9(3): 267-268.
18. Mary, Ann(1999) Formal Politics, Meta-Space, and the Construction to Civil Life. The Production of Public Space.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19. McCann, Eugene(1999) Race, protest, and public space: Contextualizing lefebvre in the U.S. City. Antipode. 31(2): 163-184.
20. Miller, Kristine(2007) Designs on the Public: The Private Lives of New York's. London: Minnesota.
21. Mitchell, Don(1995) The end of public space?.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 85(1): 108-133.
22. Mitchell, Don(1996) Introduction: Public space and the city. Urban Geography 17: 127-131.
23. Moore, Alexander(1980) Walt disney world: Bounded ritual space and the playful pilgrimage center. Anthropological Quarterly 53: 207-218.
24. Oldenburg, Ray(1999) The Great Good Place. New York: Marlowe

- & Company.
25. Per, Aurora Fernandez and Javier Arpa(2008) The Public Chance: New Urban Landscapes. Madrid: Antamaria.
  26. Polanyi, Karl(2001)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osen: The Beacon Press.
  27. Sennett, Richard(1992) The Fall of Public Ma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8. Sorkin, Michael(1999) Variations on a Theme Park. Toronto: Harper Colins Canada Ltd.
  29. Stevens, Quentin(2007a) Betwixt and Between: Building Thresholds, Liminality and Public Spaces. Loose Space: Possibility and Diversity in Urban Life. London: Routledge. pp. 73-92.
  30. Stevens, Quentin(2007b) The Ludic City: Exploring the Potential of Public Spaces. New York: Routledge.
  31. Turner, Victor(1982) The Ritual Process: Structure and Anti-Structure. New York: Aldine de Gruyter.
  32. Wall, Alex(1999) Programming the Urban Surface. Recovering Landscape.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p. 232-249.
  33. Zukin, Sharon(1991) Landscapes of Pow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34. Zukin, Sharon(1995) The Cultures of Cities. Cambridge, MA: Blackwell Publishers.
  35. Zukin, Sharon(2010) Naked City: The Death and Life of Authentic Urban Plac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6. <http://urban.cccb.org/prize/>

---

원 고 접 수 일: 2010년 7월 13일  
 심 사 일: 2010년 9월 27일(1차)  
                   2011년 8월 25일(2차)  
 계 재 확 정 일: 2011년 8월 28일  
 4 인 의 명 심 사 필